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12 주차 (7:1~7:36)

(2015년 4월 12일 - 2015년 4월 18일)

(제3권 12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12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4 월 12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http://www.b2bm.org)

####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sup>th</sup>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ARTENSIA (1997)

#### 번역 및 해설

편집 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 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http://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주일)

### 오늘의 본문(요 7:1~9)

1. 이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2.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 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 원문해석하기

- (1절) 그 일이 있은 후 (Καὶ μετὰ ταῦτα)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습니다 (περιεπάτει ὁ Ἰησοῦς ἐν τῇ Γαλιλαίᾳ·)  
[왜냐하면] 그가 유대에서 다니기 위해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οὐ γὰρ ἤθελεν ἐν τῇ Ἰουδαίᾳ περιπατεῖν·)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찾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ζήτουν αὐτὸν οἱ Ἰουδαῖοι ὅπως ἀποκτεῖναι.)
- (2절) 유대인의 축제일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Ἦν δὲ ἐγγὺς ἡ ἑορτὴ τῶν Ἰουδαίων ἡ σκινοπηγία.)
- (3절)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πρὸς αὐτὸν οἱ ἀδελφοὶ αὐτοῦ·)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μετάβηθι ἐντεῦθεν καὶ ὑπάγε εἰς τὴν Ἰουδαίαν·)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ἵνα καὶ οἱ μαθηταὶ σου θεωρήσουσιν σοῦ τὰ ἔργα ἃ ποιεῖς·)
- (4절) 왜냐하면 아무도 숨겨진 곳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οὐδεὶς γὰρ τι ἐν κρυπτῷ ποιεῖ)  
그 자신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구합니다 (καὶ ζητεῖ αὐτὸς ἐν παρρησίᾳ εἶναι.)  
당신이 만약 이같은 것을 행한다면 (εἰ ταῦτα ποιεῖς·)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φανέρωσον σεαυτὸν τῷ κόσμῳ·)
- (5절)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조차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οὐδὲ γὰρ οἱ ἀδελφοὶ αὐτοῦ ἐπίστευον εἰς αὐτόν·)
-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ὁ καιρὸς ὁ ἐμὸς οὐπω πάρεστιν·)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ὁ δὲ καιρὸς ὁ ὑμέτερος πάντοτε ἔστιν ἔτοιμος·)

- (7절) 세상은 능히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οὐ δύναται ὁ κόσμος μισεῖν ὑμᾶς,  
그러나 나는 미워한다 (ἐμὲ δὲ μισεῖ.)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대하여 “그의 일은 악하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이다  
(ὅτι ἐγὼ μαρτυρῶ περὶ αὐτοῦ ὅτι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πονηρά ἐστιν.)
- (8절) 너희들은 축제일을 위해 올라가라 (ὕμεῖς ἀνάβητε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나는 이번 축제일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ἐγὼ οὐκ ἀναβαίνω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ταύτην·)  
왜냐하면 나의 때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ὅτι ὁ ἐμὸς καιρὸς οὐπω πεπλήρωται.)
- (9절) 그가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렀습니다 (ταῦτα δὲ εἰπὼν αὐτὸς ἔμεινεν ἐν τῇ Γαλιλαίᾳ.)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권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초막절 축제일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동생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1절을 읽으십시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유대 땅으로 가지지 않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장은 ‘이 일이 있은 후’로 시작됩니다.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6장의 사건이 있은 후’라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6장의 사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원성을 살만한 일도 아니었고, 더구나 그 일은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6:59). 결국 7장 1절의 ‘이 일이 있은 후’라는 말은 6장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가 보다는 오히려 5장과 관련이 깊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은 유대 명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베테스다 연못에서 38년된 병자를 고친 후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고, 그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5:18) 이를 토대로 보면 7장 1절의 설명은 5장의 사건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해 보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존재는 그들이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위험한 인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예수가 유대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 자기 자신을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까지 올려놓는 말씀을 공공연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하는 일이 늘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세계관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배척하고 봅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보다는 자신들이 믿고 경험한 것들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따르지요. 그러다보니 진리가 육신이 되어 자신들의 눈 앞에 실제로 나타나서 수 많은 표적들을 보여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커녕 오히려 진리의 대적자로 간주해버립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불순한 사람으로 죽어 마땅한 존재였습니다.

1절을 읽으면서 생기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있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7장 1절에는 예수님이 마치 그런 상황을 일부러 회피하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하셨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2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의 축제일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티쉬레이(Tishrei)달(태양력으로는 9~10월)의 15일부터 일주일간 축제를 벌였으며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대대적인 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그 시기가 가을이고 모든 추수가 끝난 이후에 열리는 축제라 추수 감사제(우리나라의 추석)의 성격도 겸하고 있어 수장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초막절은 유월절, 오순절(칠칠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로 불립니다. 그리고 이 세 절기 모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축제가 끝날 무렵 비와 이슬을 내려 달라는 기원을 담은 행사가 열렸는데 이 때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 매일 제단에 붓는 행사도 행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축제의 마지막 날에 ‘생수’에 대한 선포를 하신 것도 이런 관습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3~5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권한 이유는 유대 땅 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축제에도 참석하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와 유다서를 쓴 유다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막 3:21) 예수님을 데려가기 위해 그가 머무시는 장소로 찾아 오기까지 했습니다(마 12:46~50, 막 3:31~35 참조).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유대 땅으로 가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형제들이 왜 이런 권유를 하는지 그 동기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한 제자들이 있거나, 혹은 그들 대부분은(특히 이 시기에)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아니며 그들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6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곁을 떠난 사람들로써(요 6:66) 이들 중 상당수가 초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으로 올라갈테니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도록 할 기회가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들의 동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5절). 이 모든 상황을 토대로 볼 때 결국 이들의 동기가 순수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왜 그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권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십시오.

4절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그런 권유를 한 동기가 무엇인지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숨겨진 곳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구하지요. 만약 당신이 이같은 것을 행한다면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요 6:14-15, 26 참조). 인간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같은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들이 예수님을 유명하게 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당신은 어떠한가요? 기적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적을 체험했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하고 초자

연적인 능력을 맞본 경험이 겸손한 종으로 오셔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의견을 써 보세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어있습니다 (월요일)

### 오늘의 본문(요 7:1~9)

1. 이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2.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 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 원문해석하기

- (1절) 그 일이 있은 후 (Καὶ μετὰ ταῦτα)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셨습니다 (περιεπάτει ὁ Ἰησοῦς ἐν τῇ Γαλιλαίᾳ·)  
[왜냐하면] 그가 유대에서 다니기 위해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οὐ γὰρ ἤθελεν ἐν τῇ Ἰουδαίᾳ περιπατεῖν·)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 찾았기 때문입니다  
(ὅτι ἐζήτουν αὐτὸν οἱ Ἰουδαῖοι ὅπως τεῖναι.)
- (2절) 유대인의 축제일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Ἦν δὲ ἐγγὺς ἡ ἑορτὴ τῶν Ἰουδαίων ἡ σκινοπηγία.)
- (3절)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πρὸς αὐτὸν οἱ ἀδελφοὶ αὐτοῦ·)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μετάβηθι ἐντεῦθεν καὶ ὕπαγε εἰς τὴν Ἰουδαίαν·)  
당신이 행하시는 그 일을 당신의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ἵνα καὶ οἱ μαθηταὶ σου θεωρήσουσιν σοῦ τὰ ἔργα ἃ ποιεῖς·)
- (4절) 왜냐하면 아무도 숨겨진 곳에서 행하지 않습니다 (οὐδεὶς γὰρ τι ἐν κρυπτῷ ποιεῖ)  
그 자신이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구합니다 (καὶ ζητεῖ αὐτὸς ἐν παρρησίᾳ εἶναι.)  
당신이 만약 이같은 것을 행한다면 (εἰ ταῦτα ποιεῖς·)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낼 것입니다 (φανέρωσον σεαυτὸν τῷ κόσμῳ.)
- (5절) 왜냐하면 그의 형제들조차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οὐδὲ γὰρ οἱ ἀδελφοὶ αὐτοῦ ἐπίστευον εἰς αὐτόν·)
-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λέγει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ὁ καιρὸς ὁ ἐμὸς οὐπω πάρεστιν·)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ὁ δὲ καιρὸς ὁ ὑμέτερος πάντοτε ἐστὶν ἔτοιμος·)

- (7절) 세상은 능히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οὐ δύναται ὁ κόσμος μισεῖν ὑμᾶς,  
그러나 나는 미워한다 (ἐγὼ δὲ μισεῖ),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대하여 “그의 일은 악하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이다  
(ὅτι ἐγὼ μαρτυρῶ περὶ αὐτοῦ ὅτι τὰ ἔργα αὐτοῦ πονηρά ἐστιν.)
- (8절) 너희들은 축제일을 위해 올라가라 (ὕμεις ἀνάβητε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나는 이번 축제일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ἐγὼ οὐκ ἀναβαίνω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ταύτην·)  
왜냐하면 나의 때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ὅτι ὁ ἐμὸς καιρὸς οὐπω πεπλήρωται.)
- (9절) 그가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렀습니다 (ταῦτα δὲ εἰπὼν αὐτὸς ἔμεινεν ἐν τῇ Γαλιλαίᾳ.)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6절을 읽으십시오. 초막절 축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여 그 존재감을 드러내라고 재촉하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난해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는 도대체 언제이며 동생들에게 그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서 ‘때’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이로스(καιρός)’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때 뿐만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시간과 시점 모두에 사용되는 단어로 이와 대응되는 단어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역사적이고 순차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에 반해 카이로스는 그런 시간적 흐름과는 별개의 어떤 특정한 시간과 시점을 말합니다. 이외에 요한복음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더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즉, “여자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에서 ‘내 때’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용된 헬라어 ‘호라’(ώρα)입니다. 여기 쓰인 호라는 7장 6절과 8절에 쓰인 카이로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다른 공관 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단 세 번 사용하였는데 모두 7장 6절, 8절에 등장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호라는 26회에 걸쳐 사용하였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10회, 마가복음에는 5회, 누가복음에는 12회가 사용된 것에 비해 요한복음에서는 매우 인색하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유독 7장에서만 예수님이 ‘호라’대신에 ‘카이로스’를 사용하신 것으로 써 놓았을까요?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특히나 예수님이 형제들에게 “너희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느니라”라고 말한 것과 대조하여 보면 예수님의 때와 형제들의 때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7절을 읽으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형제들에게 “세상은 능히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나는 미워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대하여 ‘그의 일은 악하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기로 하지요.

먼저 첫 구절인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살펴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마치 ‘세상이 지금 현재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현실에 대한 진술처럼 들립니다. 또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언젠가는 미워하게 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워하느냐 아니면 미워하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문장의 헬라어 원어는 ‘오우 두나타이 호 코스모스 미세인 후마스’ (οὐ δύναται ὁ κόσμος μισεῖν ὑμᾶς)입니다. 여기서 핵심 동사는 ‘두나타이...미세인’ (δύναται...μισεῖν)인데 이 의미는 be able to hate입니다. 앞에 부정의 의미가 붙어 ‘결코 세상이 싫어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싫어할 의지도 싫어할 능력도 없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형제들을 세상이 싫어할 수 없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세상은 왜 이들을 싫어하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보십시오.

여기서 싫어한다는 말의 의미는 ‘상대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장기 이식을 예로 들어 봅시다. 장기 이식을 할 때 우리 몸과 아무리 잘맞는 장기를 이식한다 해도 기존의 면역 시스템이 그것을 공격하게 됩니다. 몸이 그 장기를 이물질로 여겨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것을 신체의 일부로 받아들이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면역을 억제하는 처방을 해야만 합니다. 이와는 달리 우리 몸의 장기는 태어날 때부터 한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혀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한몸으로 인식하여 거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되고 그런 현상은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곳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거부 반응을 보이는 대상은 비단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하십니다.

“<sup>47</sup>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sup>18</sup>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sup>19</sup>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7-19).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sup>2</sup>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sup>3</sup>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sup>4</sup>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요 16:14).

세상이 미워하고 안하고는 예수님과 연합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본을 보여도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로 들어가면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이질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상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데 그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미워한다.” 이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셨지만 그들은 끝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선한 행위를 해서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복음 전도로 인한 핍박이 줄어들 거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선한 행위와는 무관하게 세상은 십자가의 복음을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 “그의 일은 악하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세상 일이 악하다고 증거하고 다니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하셨을 뿐이지요. 그런데도 왜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미워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세상이 어둠이었고 악한 일을 하였다는 것이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빛으로 나오기를 꺼려하는 세상의 일을 만천하에 무익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제거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그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어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열심으로 일구어 낸 성과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겉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자신이 열심히 쌓아 온 의가 무가치한 것이라는 사실에 속으로는 웬지 손해 보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보면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인간들의 자존심 챙기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이번 축제일에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후 갈릴리에 그대로 머무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까요. 왜 예수님은 실제로는 올라가실 거면서 형제들에게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그가 어디에 있느냐? (화요일)

### 오늘의 본문 (요 7:10~24)

10.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11.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14.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5.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1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
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 원문해석하기

- (10절) 그의 형제들이 축제를 위해 올라가자 (Ὡς δὲ ἀνέβησαν οἱ ἀδελφοὶ αὐτοῦ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그때에 그도 역시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올라가셨습니다 (τότε καὶ αὐτὸς ἀνέβη σὺ φανερώς ἀλλὰ [ὡς] ἐν κρυπτῷ.)
- (11절)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축제일에 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οἱ οὖν Ἰουδαῖοι ἐζήτουν αὐτὸν ἐν τῇ ἑορτῇ καὶ ἔλεγον·) 그가 어디에 있느냐? (ποῦ ἔστιν ἐκεῖνος·)
- (12절) 무리들 가운데 그[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καὶ γογγυσμὸς περὶ αὐτοῦ ἦν πολὺς ἐν τοῖς ὄχλοις·) 한편에서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οἱ μὲν ἔλεγον ὅτι ἀγαθὸς ἔστιν,) 오히려 아니라 그는 군중들을 미혹하는 자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ἄλλοι [δὲ] ἔλεγον· οὐ, ἀλλὰ πλανᾷ τὸν ὄχλον.)
- (13절) 그러나 누구도 그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οὐδεὶς μὲντοι παρρησίᾳ ἐλάλει περὶ αὐτοῦ)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διὰ τὸν φόβον τῶν Ἰουδαίων.)
- (14절) 이미 축제일의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Ἦδη δὲ τῆς ἑορτῆς μεσοῦσης ἀνέβη Ἰησοῦς εἰς τὸ ἱερὸν καὶ ἐδίδασκεν.)
- (15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ἐθαύμαζ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λέγοντες·) 배우지도 않은 그가 어떻게 글을 아는가? (πῶς οὗτος γράμματα οἶδεν μὴ μεμαθηκός·)
-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ἡ ἐμὴ διδασχὴ οὐκ ἔστιν ἐμὴ ἀλλὰ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 (17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ἐάν τις θέλη τὸ θέλημα αὐτοῦ ποιῆν,) 이 가르침에 대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γνώσεται περὶ τῆς διδασχῆς)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πότερον ἐκ τοῦ θεοῦ ἔστιν ἢ ἐγὼ ἀπ' ἐμαυτοῦ λαλῶ.)
-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찾습니다 (ὁ ἀπ' ἐαυτοῦ λαλῶν τὴν δόξαν τὴν ἰδίαν ζητεῖ) 그러나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자는 참됩니다 (ὁ δὲ ζητῶν τὴν δόξαν τοῦ πέμψαντος αὐτὸν οὗτος ἀληθὴς ἔστιν) 그 안에 불의가 없습니다 (καὶ ἀδικία ἐν αὐτῷ οὐκ ἔστι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0 절을 읽으십시오. 형제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떠나자 예수님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형제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신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형제들에게 이번 초막절 축제 때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8 절). 그런데 형제들이 떠나자마자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주석가들은 8 절을 이번 명절에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8 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8 절은 명백하게 올라가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정말로 거짓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의견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때는 유월절이지 초막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의 분위기로 보아서는 유대인들이 그 형제나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보면 죽이고자 달려들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나 형제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능력을 대중들에게 공개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로 신분이 노출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비밀리에 바로 뒤따라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보면 의문에 의문이 꼬리를 무는 것이 현실입니다. 계속해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맹목적으로 성경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럴 경우 ‘문자적 맹신’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위험한 줄 아면서도 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까요? 거기 가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셔도 됐을텐데 그렇게 비밀리에라도 반드시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믿는 자들은 사실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해석되고 그를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밀리에라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야만 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십시오. (이에 대한 대답은 이어지는 7:14-8:59 의 가르침을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11~13 절을 읽으십시오. 축제일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련의 무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에는 예수님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1 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축제일에 그를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를 높여 왕삼으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이리저리 찾아 다녔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12 절의 ‘무리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여기서 유대인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D.A Carson, p.309).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그가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그사람’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끼리에서는 요주의 인물 1 호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냥 ‘그사람’이라고 하면 알만한 인물이었던 거지요. 이런 표현을 쓴 걸로 미루어 짐작컨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런 예수님을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대한 이유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그렇게 애를 썼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2~13 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생각은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편은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다른 편은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소신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무리들이란 축제에 참가한 일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복음서에 ‘무리들’로 표현된 사람들의 집단적 특징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호의적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되 너무 깊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며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지요. 이들은 각자 신념이 확고하지 않고 주로 감각적인 것에 의존합니다. 기적을 눈으로 목격하거나 기적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면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것처럼 열광하다가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미련없이 예수님 곁을 떠나고 맙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쫓는 유일한 이유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좋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기

꺼려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요. 아주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각자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자랑으로 여기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려 놓을 자신이 있는가? 등등.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르게 질문을 해보아도 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그런 ‘무리들’ 중의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나의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수요일)

### 오늘의 본문 (요 7:10~24)

10.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11.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14.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5.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1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
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 원문해석하기

- (10절) 그의 형제들이 축제를 위해 올라가자 (Ὡς δὲ ἀνέβησαν οἱ ἀδελφοὶ αὐτοῦ εἰς τὴν ἑορτήν,) 그때에 그도 역시 드러내지 않고 비밀리에 올라가셨습니다 (τότε καὶ αὐτὸς ἀνέβη σὺ φανερώς ἀλλὰ [ὡς] ἐν κρυπτῷ.)
- (11절)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축제일에 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οἱ οὖν Ἰουδαῖοι ἐζήτουν αὐτὸν ἐν τῇ ἑορτῇ καὶ ἔλεγον·) 그가 어디에 있느냐? (ποῦ ἐστὶν ἐκεῖνος·)
- (12절) 무리들 가운데 그[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καὶ γογγυσμὸς περὶ αὐτοῦ ἦν πολὺς ἐν τοῖς ὄχλοις·) 한편에서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οἱ μὲν ἔλεγον ὅτι ἀγαθὸς ἐστίν·) 오히려 아니라 그는 군중들을 미혹하는 자라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ἄλλοι [δὲ] ἔλεγον· οὐ, ἀλλὰ πλανᾷ τὸν ὄχλον·)
- (13절) 그러나 누구도 그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οὐδεὶς μὲντοι παρρησίᾳ ἐλάλει περὶ αὐτοῦ)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διὰ τὸν φόβον τῶν Ἰουδαίων·)
- (14절) 이미 축제일의 중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Ἦδη δὲ τῆς ἑορτῆς μεσοῦσης ἀνέβη Ἰησοῦς εἰς τὸ ἱερὸν καὶ ἐδίδασκεν·)
- (15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ἐθαύμαζ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λέγοντες·) 배우지도 않은 그가 어떻게 글을 아는가? (πῶς οὗτος γράμματα οἶδεν μὴ μεμαθηκώς·)
-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ἀπεκρίθη οὖν αὐτοῖς [ὁ]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ἡ ἐμὴ διδασχὴ οὐκ ἐστὶν ἐμὴ ἀλλὰ τοῦ πέμψαντός με·)

- (17절) 만일 어떤 사람이 그[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ἐάν τις θέλη τὸ θέλημα αὐτοῦ ποιεῖν,) 이 가르침에 대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 (γνώσεται περὶ τῆς διδασχῆς)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πότερον ἐκ τοῦ θεοῦ ἔστιν ἢ ἐγὼ ὅτι ἐμαυτοῦ λαλῶ.)
-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찾습니다 (ὁ ἄρ' ἑαυτοῦ λαλῶν τὴν δόξαν τὴν ἰδίαν ζητεῖ) 그러나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찾는 자는 참됩니다 (ὁ δὲ ζητῶν τὴν δόξαν τοῦ πέμψαντος αὐτὸν οὗτος ἀληθὴς ἔστιν) 그 안에 불의가 없습니다 (καὶ ἀδικία ἐν αὐτῷ οὐκ ἔστι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4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초막절 축제 기간의 중간 즈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디다스코(διδάσκω)’인데 이 단어는 지금처럼 단순히 학습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디다케’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는 교육 시스템이 표준화되어 있어 어딜 가든 공통된 지식과 정보를 가르치고 배우는데 반해 당시에는 랍비들 나름대로 다양한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서에는 이러한 삶의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며 특히 마태복음 5 장~8 장의 산상수훈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그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의미를 알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15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은 “배우지도 않은 그가 어떻게 글을 아는가?”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다는 듯이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15 절에 나온 유대 지도자들의 태도를 보면 평소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몇 번의 안식일 사건과 성전에서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에 관한 뒷조사를 면밀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다른 공관 복음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파견돼 와서 예수님의 활동을 감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 장 장 1~2 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sup>2</sup>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막7:1-2).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시쳇말로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요주의 감시 인물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으며 요셉의 아들로 목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듣고는 매우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제대로 배운 유대 지도자들보다 훨씬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다우마조(θαυμάζω)’의 분사형입니다. ‘다우마조’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나 난생 처음 경험하여 어안이 병병한 상태를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군중들의 반응이나 기적을 본 후 놀라는 상태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 지도자들의 이런 반응 속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만만하게 보고 어떻게든 잡아서 공개 처형만 해 버리면 그만일 뿐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사적 질문 속에는 “어, 예수가 우리가 생각한 그 정도가 아니잖아!”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16~17 절을 읽으십시오. 그들이 놀라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은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이 가르침에 대해 깨닫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가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면 이 가르침에 대하여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이론적 논쟁거리가 아니라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만 성취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찾아서 완벽하게 다 행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는지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 뿐이라는 사실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고 사람들은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17 절에서 ‘어떤 사람’은 일단은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17 절에서 ‘어떤 사람(τις τις)’이 단수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불특정 다수를 대표하는 대표 단수일 수도 있으나 정황상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은 예수님 밖에 없었고, 그것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18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됩니다. 그 안에는 불의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다(찾다)’와 ‘그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다(찾다)’에서 쓰인 동사 ‘제테이(ζητεί)’는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만들어 내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빗대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 낸다 할지라도 인간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실 뿐이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세상 사람들로 부터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손가락질 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인간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분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거나 가려질 정도로 무능하고 수동적인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열심히 하면 결국은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 결국은 인간들이 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행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욥기서를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끝까지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sup>7</sup>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sup>8</sup>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욥 35:6-8).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걸까요? 한 마디로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을 절대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이런 저런 것들을 다 내려 놓았느니, 나는 무엇무엇을 했다느니, 어찌어찌 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느니 등의 말들을 늘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저 자신은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되 티를 내지 않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하지만 말이 쉽지 이렇게 살기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우리들의 거짓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는 한 어찌면 실현 불가능한 과제일지도 모르지요. 그래도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나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요? 나를 자랑하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자랑하는지 말입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너희 중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목요일)

### 오늘의 본문 (요 7:19~24)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 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23.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 원문해석하기

- (19절) 모세가 당신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Οὐ Μωϋσῆς δέδωκεν ὑμῖν τὸν νόμον.)  
그리고 당신들 중에 누구도 그 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ξ ὑμῶν ποιεῖ τὸν νόμον.)  
[그러면서] 어찌하여 당신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 찾고 있습니까? (τί με ζητεῖτε ἀποκτεῖναι.)
- (20절) 군중들이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ὁ ὄχλος.)  
당신이 악령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 찾고 있습니까?  
(δομόνιον ἔχεις· τίς σε ζητεῖ ἀποκτεῖναι.)
-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나는 한 가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ἐν ἔργον ἐποίησα καὶ πάντες θαυμάζετε.)
- (22절) 모세가 당신들에게 할례를 주었기 때문에 (διὰ τοῦτο Μωϋσῆς δέδωκεν ὑμῖν τὴν περιτομήν)  
([사실] 그것은 모세로부터가 아니요 조상들로부터입니다)  
(- οὐχ ὅτι ἐκ τοῦ Μωϋσῆως ἐστὶν ἀλλ' ἐκ τῶν πατέρων-)  
당신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합니다 (καὶ ἐν σαββάτῳ περιτέμνετε ἄνθρωπον.)
- (23절) 만약 안식일에 사람이 할례를 받을지라도 (εἰ περιτομήν λαμβάνει ἄνθρωπος ἐν σαββάτῳ)  
그 결과 모세의 율법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ἵνα μὴ λυθῇ ὁ νόμος Μωϋσῆως.)  
당신들은 안식일에 내가 사람의 전체를 낫게 한 것 때문에 나에게 분노합니까?  
(ἐμοὶ χολᾷτε ὅτι ὅλον ἄνθρωπον ὑγιῆ ἐποίησα ἐν σαββάτῳ.)
- (24절)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마십시오 (μὴ κρίνετε κατ' ὄμν.)  
오히려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십시오 (ἀλλὰ τὴν δικαίαν κρίσιν κρίνετε.)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9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모여 든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당신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들 중 그 누구도 그 율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구절의 수사적 질문과 대답에 담긴 의미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내 “그리고 당신들은 누구도 그 율법을 행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수사적 질문과 대답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당신들에게 율법을 주어 당신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 율법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세척까지 만들어서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더더욱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며 매트를 들고 가라고 하여 율법을 어긴 자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하신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저 소극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것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면 안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적극적인 행동이 따라야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며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행하라는 말은 사랑을 갖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수사적 질문과 답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갈 3:24). 즉,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율법을 주신 목적에 따라 바르게 인도를 받으면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점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의 기능이나 목적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으로 그럴듯하게 자신들을 포장하는데 급급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사랑에 눈 뜨지도, 눈 앞에서 있는 그리스도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면 당신들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합니다. 이 말씀은 앞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취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분을 제대로 알아보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문자적으로 적용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들도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우리들은 누구나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깨닫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

도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왜 우리가 율법 아래서 그토록 힘들어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그 율법이 고맙게도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기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sup>2</sup>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sup>3</sup>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sup>4</sup>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1-4).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과는 반대로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켜내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위대함을 입증하려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눈엣가시같은 존재였지요.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율법을 주었더니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으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는데 율법으로 자신과 남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각자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보세요. 지금 남들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 늘 불안해 하고 있지는 않는가? 왜 그렇게 느끼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진 않은가? 만약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그를 용서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 말은 반드시 자신을 용서하거나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죄책감은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으며, 끊지 못하는 중독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런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지 오늘 하루 이 질문에 대해 묵상하다 보면 아마도 당신은 인생의 길목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 그분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외모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금요일)

### 오늘의 본문 (요 7:19~24)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 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23.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 원문해석하기

- (19절) 모세가 당신들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까?  
(Οὐ Μωϋσῆς δέδωκεν ὑμῖν τὸν νόμον.)  
그리고 당신들 중에 누구도 그 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καὶ οὐδείς ἐξ ὑμῶν ποιεῖ τὸν νόμον.)  
[그러면서] 어찌하여 당신들은 나를 죽이기 위해 찾고 있습니까? (τί με ζητεῖτε ἀποκτεῖναι.)
- (20절) 군중들이 대답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ὁ ὄχλος.)  
당신이 악령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 찾고 있습니까?  
(δομόνιον ἔχεις· τίς σε ζητεῖ ἀποκτεῖναι.)
-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ἀπεκρίθη Ἰησοῦς καὶ εἶπεν αὐτοῖς.)  
나는 한 가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ἐν ἔργον ἐποίησα καὶ πάντες θαυμάζετε.)
- (22절) 모세가 당신들에게 할례를 주었기 때문에 (διὰ τοῦτο Μωϋσῆς δέδωκεν ὑμῖν τὴν περιτομήν)  
([사실] 그것은 모세로부터가 아니요 조상들로부터입니다)  
(- οὐχ ὅτι ἐκ τοῦ Μωϋσῆως ἐστὶν ἀλλ' ἐκ τῶν πατέρων-)  
당신들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합니다 (καὶ ἐν σαββάτῳ περιτέμνετε ἄνθρωπον.)
- (23절) 만약 안식일에 사람이 할례를 받을지라도 (εἰ περιτομήν λαμβάνει ἄνθρωπος ἐν σαββάτῳ)  
그 결과 모세의 율법을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ἵνα μὴ λυθῇ ὁ νόμος Μωϋσῆως.)  
당신들은 안식일에 내가 사람의 전체를 낫게 한 것 때문에 나에게 분노합니까?  
(ἐμοὶ χολᾷτε ὅτι ὅλον ἄνθρωπον ὑγιῆ ἐποίησα ἐν σαββάτῳ.)
- (24절)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마십시오 (μὴ κρίνετε κατ' ὄμν.)  
오히려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십시오 (ἀλλὰ τὴν δικαίαν κρίσιν κρίνετε.)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0절을 읽으십시오. 그곳에 모여 있던 군중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악령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기 위해 찾고 있습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분명한데 이런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지 말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대화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입니다. (15절 참조). 그리고 19절까지의 말씀은 모두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여 있던 군중들이 이 대화 중간에 불쑥 끼어든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 중간에 끼어든 일을 상세하게 묘사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후 그들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1절을 미리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군중들 중 많은 수가 그를 믿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의 행한 표적이 이 분이 행한 표적보다 많지 않을 것 아닌가?” (Εκ τοῦ ὄχλου δὲ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ὸν καὶ ἔλεγον· ὁ χριστὸς ὅταν ἔλθῃ μὴ πλείονα σημεῖα ποιήσει ὢν οὗτος ἐποίησεν.)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이들의 믿기 전 상태가 어떠했는지 보여주고자 이 일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21~24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군중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대화의 상대가 바뀝니다. 유대인들을 향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군중들을 향한 설교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 중간에 대화 상대가 바뀌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지 주목하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가지 일을 행하였고 당신들 모두가 놀랐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이란 의심할 나위 없이 삼십팔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일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병자가 나온 것을 목격했고 그 때문에 놀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도리어 예수님께는 해가 되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 사건 이후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하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요 5:18 참조).

22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갑자기 할례에 관해 언급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안식일과 할례 문제를 연결시켜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할례제도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아예 모세가 할례를 행했다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완전한 오역입니다.] 물론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모세를 통해 처음으로 준 것이 아니지요. 그 이전부터 행해 오던 것을 모세가 율법에 명문화했으며 유대인들은 그런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여 할례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점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할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이들이 안식일에 늘 할례를 주고



있었으며 그 일이 율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자신이 안식일에 사람을 낮게 한 것이 절대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님을 변론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실 공관 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갈등을 빚은 이유가 주로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9절~15절을 보겠습니다.

“9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sup>10</sup> 한편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sup>11</sup>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sup>12</sup>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sup>13</sup>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sup>14</sup>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 <sup>15</sup>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좃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마12:9-15).

이 이야기에서도 반응은 동일합니다.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치자 많은 무리들은 그로 인해 예수님을 따랐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예수를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23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당신들은 안식일에 내가 사람의 전체를 낮게 한 것 때문에 나에게 분노합니까?” 이 말씀은 ‘신체의 일부를 베어내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살도록 하는 일은 허용하면서도 온몸을 성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게 분노하느냐?’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들이 얼마나 외식적이며 율법을 자의로 해석해 왔는지에 대한 일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24절을 읽으십시오.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십시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토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또는 남들에 대해 외모로 판단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 예루살렘에서 온사람들...(토요일)

### 오늘의 본문 (요7:25~36)

25.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 인줄 알았는가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28.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30.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31.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라 하니
32.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3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35.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 원문해석하기

- (25절) 그러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 사람이 말했습니다 (“Ελεγον οὖν τινες ἐκ τῶν Ἱεροσολυμιτῶν·) 이 사람이 그들이 죽이고자 찾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οὐχ οὗτός ἐστιν ὃν ζητοῦσιν ἀποκτεῖναι·)
- (26절) 보라! 그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을 하고 있다 (καὶ ἴδε παρρησίᾳ λαλεῖ) 아무도 그에게 말을 하는 자가 없도다 (καὶ οὐδὲν αὐτῷ λέγουσιν.) 당국자들이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실로 깨달은 것은 아닌가? (μήποτε ἀληθῶς ἔγνωσαν οἱ ἄρχοντες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χριστός·)
- (27절)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안다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ἀλλὰ τοῦτον οἴδαμεν πόθεν ἐστίν·)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실 때 아무도 그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다 (ὁ δὲ χριστὸς ὅταν ἔρχηται οὐδεὶς γινώσκει πόθεν ἐστίν·)
- (28절)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쳐 말씀하시고 외치셨습니다 (ἔκραξεν οὖν ἐν τῷ ἱερῷ διδάσκων ὁ Ἰησοῦς καὶ λέγων·) 당신들은 나를 알고 내가 어디로부터 존재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καὶ ἐγὼ οἶδατε καὶ οἶδατε πόθεν εἰμί·)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습디다 (καὶ ὅτι ἐμαυτοῦ οὐκ ἐλήλυθα·)

-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십니다 (ἀλλ' ἔστιν ἀληθινὸς ὁ πέμψας με.)  
당신들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ὄν ὑ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 (29절) 나는 그를 알고 있습니다 (ἐγὼ οἶδα αὐτόν.)  
왜냐하면 내가 그로부터 있고 그가 나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αρ' αὐτοῦ εἰμι καὶ κείνός με ἀπέστειλεν.)
- (30절) 그래서 그들이 그를 잡으려 했습니다 (Ἐζήτουν οὖν αὐτὸν πιάσαι.)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니다 (καὶ οὐδεὶς ἐπέβαλεν ἐπ' αὐτὸν τὴν χεῖρα.)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ὅτι οὐπω ἐληλύθει ἡ ὥρα αὐτοῦ.)
- (31절) 군중들 중 많은 수가 그를 믿고 말했습니다 (Ἐκ τοῦ ὄχλου δὲ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ὸν καὶ ἔλεγον·)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의 행한 표적이 이 분이 행한 표적보다 많지 않을 것 아닌가?  
(ὁ χριστὸς ὅταν ἔλθῃ μὴ πλείονα σημεῖα ποιήσει ὢν οὗτος ἐποίησεν.)
- (32절) 군중들이 그에 대하여 속닥거리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ἤκουσαν οἱ Φαρισαῖοι τοῦ ὄχλου γογγύζοντος περὶ αὐτοῦ ταῦτα.)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καὶ ἀπέστειλαν οἱ ἀρχιερεῖς καὶ οἱ Φαρισαῖοι ὑπηρέτας ἵνα πιάσωσιν αὐτόν.)
- (33절)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εἶπεν οὖν ὁ Ἰησοῦς·)  
나는 잠시 동안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ἔτι χρόνον μικρὸν μεθ' ὑμῶν εἰμι)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갈 것입니다 (καὶ ὑπάγω πρὸς τὸν πέμψαντά με.)
- (34절)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ζητήσατέ με καὶ οὐχ εὐρήσατέ [με].)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καὶ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ἔλθειν.)
- (35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εἶπον οὖν οἱ Ἰουδαῖοι πρὸς ἑαυτούς·)  
우리가 그를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니 그가 지금 바로 어디로 떠나려는가?  
(ποῦ οὗτος μέλει πορεύεσθαι ὅτι ἡμεῖς οὐχ εὐρήσομεν αὐτόν.)  
그가 헬라인 중의 디아스포라에게로 지금 바로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는 것은 아닌가?  
(μὴ εἰς τὴν διασπορὰν τῶν Ἑλλήνων μέλει πορεύεσθαι καὶ διδάσκειν τοὺς Ἕλληνας.)
- (36절) 그런 의미로 그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가? (τίς ἐστιν ὁ λόγος οὗτος ὃν εἶπεν·)  
“당신들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도 없을 것입니다”  
(ζητήσατέ με καὶ οὐχ εὐρήσατέ [με], καὶ ὅπου εἰμι ἐγὼ ὑμεῖς οὐ δύνασθε ἔλθειν.)

##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끼어듭니다. 25절은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계시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이는 단순히 이들의 거주지를 뜻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두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을 누구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둘째, 오순절 이후 교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는 초대교회에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이 두가지

관점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한 것은 비록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이었지만 이 글을 최초로 읽은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 이후 교회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 나가는 초대 교회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은 사실상 유대인들의 정치와 종교를 지배하고 결정하는 장소였고, 예루살렘 종교지도자들의 결정이 곧 모든 유대사회의 법이었던 시절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공생하면서 유대사회 전체를 율법을 통해 지배해왔습니다. 특히, 사두개 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종교적 신념이 다르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데에는 두 종파가 힘을 합쳤다는 점에서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초대 교회에서 예루살렘은 ‘유대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든 유대교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든 공히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본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조상의 전통이나 율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모세의 율법이 뒤엉켜있는 상태였지요. 그렇기에 이런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유대주의자들과 제일 많이 논쟁을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곳곳에서 모세 율법으로 대변되는 유대주의자들의 행태를 경고하고 유대주의의 폐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sup>17</sup>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sup>18</sup>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sup>19</sup>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sup>20</sup>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롬 2:17-20).

“<sup>1</sup>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sup>2</sup>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sup>3</sup>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 <sup>5</sup> 혹은 이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찌니라 <sup>6</sup>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롬 14:1-6).

“<sup>22</sup>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sup>23</sup>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군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번 죽을 뻔 하였으니 <sup>24</sup>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때를 다섯번 맞았으며”(고후 11:22-24).

“<sup>11</sup>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sup>12</sup>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

나 물러가매 <sup>13</sup>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갈 2:11-13).

“<sup>2</sup>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sup>3</sup>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빌 3:2-3).

“<sup>6</sup>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sup>7</sup>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sup>8</sup>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좇아 헛되이 과장하고 <sup>9</sup>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sup>10</sup>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sup>11</sup>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sup>12</sup>(이 모든 것은 쓰는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좇느냐 <sup>13</sup>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골2:16-23).

이와 같이 유대주의는 이방 교회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켰으며 전도하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그들의 훼방이 극심했습니다. 사실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읽어 보면 대부분의 논쟁과 쟁박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는 본래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신앙 운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들의 생각이 하나 둘씩 하나님의 율법에 섞여 들어와 어느새 전통이 되고 일종의 종교 문화로 굳어져 그 자체가 진리가 되어버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그 유대주의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끔찍한 흥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여년의 기간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제도들이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씀에 근거한 건전한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